

평판TV, 브라운관 TV 누르고 도약

2006년 상반기 점유율 50% 돌파 ... 삼성전자 매출액 54% 급상승

2006년 상반기 독일 월드컵 특수로 국내 TV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DP, LCD TV 등 평판TV는 금액 뿐만 아니라 수량 기준으로도 브라운관 TV를 누르고 점유율 50%를 돌파해 TV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삼성전자의 2006년 상반기 TV 판매(매출액 기준)는 2005년 상반기에 비해 무려 54% 도약했다.

6월 열린 독일월드컵이 가까워질수록 성장세가 두드러져 성장률은 1/4분기 25%에서 2/4분기 82%로 급상승했다.

상반기에 판매된 삼성전자 TV 가운데 평판TV가 차지한 비중(매출액 기준)도 LCD TV가 42%, PDP TV가 33%로, 총 75%에 달했다.

2006년 6월까지 LG전자도 전년동기대비 LCD TV는 4배, PDP TV는 2배 많이 판매했다.

월간 평판TV 판매량은 2005년초 1만대를 밑돌았으나 2006년 6월에는 6만대로 수직 상승했다.

LG전자의 평판TV 판매량은 브라운관 TV와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2006년초 PDP와 LCD TV의 판매량 비중은 전체 TV 판매 가운데 20%대였으나 최근에는 50%를 넘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일렉 역시 2006년 상반기 PDP TV 매출이 200% 이상 상승했다.

일부 가전제품 전문매장에서는 평판TV 판매량이 브라운관 TV 판매량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마트에 따르면, 2006년 1월 TV 판매량 가운데 16%에 그친 LCD·PDP TV의 판매비중은 3월 26%, 5월 45%로 상승한 뒤 6월 50%대로 올라섰다.

가격이 비싼 평판TV 비중이 판매량 기준으로 50%를 돌파한 것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판TV의 매출액 기준 비중은 6월 이미 90%에 육박했다.

시장 관계자는 “평판TV는 2006년초 대비 20% 가량 가격이 인하돼 수요 폭발을 일으킬 만한 매직 프라이스(Magic Price)에 도달한 데다 독일월드컵, 쌍춘절 특수를 맞아 뚜렷한 판매 증가세를 보였다”며 “브라운관, 프로젝션 TV 수요가 하반기에도 PDP, LCD TV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두 기자)<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20>